

## 대용어적 ‘그것’ 논증을 둘러싼 영원주의와 일시주의 사이의 논쟁에 대하여\*

최 동 호

**【국문요약】** “비가 오고 있다”는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는 때때로 <비가 오고 있다> 그대로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항상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하는 <시간 t 에, 장소 p에서 비가 오고 있다>인가? 이에 대한 논쟁은 영원주의(eternalism)와 일시주의(temporalism) 사이의 논쟁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전적 명제주의와 이에 대한 반론이라는 더 넓은 범주 논쟁의 하부 논쟁에 해당한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카펠렌과 호손(2009)은 고전적 명제주의[영원주의]의 입장에 서서, 그들 자신이 ‘대용어적 ‘그것’(anaphoric ‘that’) 논증’이라고 부르는 비고전적 명제주의[일시주의] 측의 한 논증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흥미로운 비판을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 나는 그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재반박함으로써, 고전적 명제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여전히 난관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요어】** 일시주의, 영원주의, 고전적 명제, 상대화된 명제, 카펠렌과 호손

---

투고일: 2016.9.17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6.10.17 게재확정일: 2016.10.18

\* 본 논문에 대해 논평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고 있다”는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는 때때로 <비가 오고 있다> 그대로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항상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하는 <시간 t에, 장소 p에서 비가 오고 있다>인가? 이에 대한 논쟁은 영원주의(eternalism)와 일시주의(temporalism)<sup>1)</sup> 사이의 논쟁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전적 명제주의와 이에 대한 반론이라는 더 넓은 범주 논쟁의 하부 논쟁에 해당한다. 그것은 가능세계 이상의 상대성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고전적 명제주의와 (주제 영역에 따라)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비고전적[상대화된] 명제주의 사이의 그룹전 가운데 개인적인 것이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카펠렌과 호손(Cappelen and Hawthorne, 이하 C&H로 축약하여 표현, 2009)은 고전적 명제주의[영원주의]의 입장에 서서, 그들 자신이 ‘대용어적 ‘그것’(anaphoric ‘that’)논증’이라고 부르는 비고전적 명제주의[일시주의] 측의 한 논증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흥미로운 비판을 제기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들의 비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근거로 삼는 핵심 논증인 유비논증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표는 카펠렌과 호손의 비고전적 명제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의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고전적 명제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

1) ‘temporalism’에 대한 번역어로는 ‘일시주의’ 이외에도 ‘시간주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temporalism’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만 내용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진리치를 갖는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시간주의’라는 번역어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eternalism(영원주의)’와의 대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일시주의’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적합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 글에서 ‘temporalism’을 ‘일시주의’로 번역하도록 하겠다.

## 1. 대용어적 ‘그것’ 논증과 이에 대한 카펠렌과 호손의 반론

### 1) 대용어적 ‘그것’ 논증

고전적 명제주의를 옹호하는 카펠렌과 호손(2009)은 그것에 대한 반대 논증들(즉, 비고전적 명제를 옹호하는 논증들) 중에 하나로서 ‘대용어<sup>2)</sup>적인 ‘그것’(anaphoric ‘that’) 논증’을 고려하고 이에 대해서 반론을 펼친다. 그들은 이런 논증을 펴는 학자들로 카플란(1989), 더밋(1991), 스탠리(1997a, b), 리처드(2003)를 들고 있다<sup>3)</sup>. 우선 대용어적인 ‘그것’ 논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사람이 “비가 오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말하는 의도가, 어떤 장소, 예를 들어, ‘런던에 비가 오고 있다’에 대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상대자가 “보스톤에서 그것은 참이 아니야”(혹은“네가 말한 것은 보스톤에서 참이 아니야”)와 같이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울 수 있다. 논증은 그때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C&H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i) 뒤따르는 대화에서 대용어적 장치인 ‘그것(that)’과 ‘네가 말한 것’은 처음 대화의 의미값(semantic value)을 집어낸다. <단일성(uniformity) 논제>
- (ii) 만약 처음 대화의 의미값이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지칭을 표현했다면, 그때 바로 그 의미값이 다른 장소에서 참일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

2) 언어학에서 ‘대용(대용 현상, anaphora)’은 맥락에 있는 다른 표현(선행사 및 후행사)에 그것의 해석이 의존하는 표현의 사용을 가리키며, 이와 관련된 대용어적 용어(anaphoric term)는 ‘대용어(anaphor)’라고 불린다. 쉽게 말해서, 앞(혹은 뒤)의 표현을 (뒤)받는 표현이 대용어이며, 대표적으로 대명사, 대동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Kaplan (1989), Dummett (1991), Stanley (1997a, 1997b), Richard (2003)

- (iii) 하지만, 뒤따르는 대화는 적절하다.
- (iv) 따라서, 처음 대화의 적절한 의미값은 특정 장소에 대한 지칭을 표현하지 않는다.(Cappelen and Hawthorne(2009), p.90, < > 안의 내용은 필자가 첨부)

이런 논증의 구체적인 실례로 C&H는 시간에 대한 것과 장소[세계]에 대한 것을 언급한다. 이들이 근본적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예만을 인용해 보자(편의상, 이 사례를 (가)라고 부르도록 하자).

(가)

A: 비가 오고 있다.

B: 그것은 내일 참이 아닐 것이다/네가 말했던 것은 내일 참이 아닐 것이다.

(Cappelen and Hawthorne(2009), p.90)

일상적으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의 A의 발화가 갖는 의미값(semantic value)은 특정한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런 대응어적 ‘그것’ 논증은, A가 “P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B가 “그것은 Q에 대해서 참이다”라고 응수할 때, ‘그것’이라는 대응어 표현이 받는 것이 <P이다> 그대로인지 혹은 <어떤 파라미터  $\alpha$ 에 따르면, P이다>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올바른 대답은 전자라고 주장하는 논증이다. 따라서 이 논증이 옳다면, 그것은 명제에 대한 고전적 견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sup>4)</sup>

---

4) 한편, 대응어적 ‘그것’ 논증에서 B의 발화를 ‘같은 것이 Q에 대해서 참이

## 2) 대용어적 ‘그것’ 논증에 대한 C&H의 반론

이런 대용어적 ‘그것’ 논증에 대해서 C&H는 이 논증에 반대하기 위해서, 같은 구조를 가지지만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지 않는 예들을 보여줌으로써, 해당 대용어적 ‘그것’ 논증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C&H는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6 가지 사례들을 제시한다. 나는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들(편의상, 이것을 (나),(다),(라)로 지칭)만을 본 논문에서 살펴볼도록 할 것이다. 우선, 다음의 예 (나)를 살펴보자.

(나)

A: 나의 부모님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B: 그것은 역시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Cappelen and Hawthorne(2009), p.91)

이 예에서 대용어 ‘그것’에 대한 독해(해석)는 표준적 언어학 이론에 따르면, 엄격한(strict) 독해와 느슨한(sloppy) 독해)로 구분될 수 있다. 엄격한 독해에 따르면, ‘그것’은 ‘A의 부모님들이 A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를 받는다. 이에 따르면, B가 말한 것은 A의 부모님 역시 B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느슨한 독해에 따르면, ‘그것’은 ‘나의 부모님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를 받는다. 즉, B가 말한 것은 B 자신의 부모님들 역시 B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sup>6)</sup> (나)에서의 B 발화의

---

다’로 바꾸어도 논증의 핵심적 내용은 유지된다. 따라서 나는 대용어적인 ‘그것’에 대한 논증이 같은 것 혹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5) 이것이 ‘느슨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두 독해의 구분을 처음 제시했던 로스(Ross, 1967)가 처음 그것을 사용했고, 그 표현이 이후에 존중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체적 실제 상황에 따라 이들 두 독해 중 어느 하나로 해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제 실제 상황이 느슨한 독해에 대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B의 발화는 ‘B가 A의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C&H는 “우리들이 아는 한 아무도 이런 현상을 ‘A의 처음 발화는 누구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의미론적으로 중립적이다’고 논증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sup>7)</sup>고 주장한다. C&H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이미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징표이다.

한편, 사례는 (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음의 (다), (라)를 살펴보자.

(다)

A: 보스턴에는 비가 억세게 내리고 있다.

B: 그것은 뉴욕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이다.

(Cappelen and Hawthorne(2009), p.91)

(라)

A: 그는 왼쪽 대신에 오른쪽으로 돌았어야 했어.

6) 참고적으로, 느슨한/엄밀한 독해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자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존은 그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빌 역시 그렇다(John loves his wife and so does Bill)’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한 해석들이 있다:

(i) 존은 맥스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빌은 맥스의 아내를 사랑한다.

(ii) 존은 존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빌은 존의 아내를 사랑한다.

(iii) 존은 존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빌은 빌의 아내를 사랑한다.

여기서 (i)과 (ii)에서의 독해는 ‘엄격한 동일성(strict identity) 독해로, (iii)은 느슨한 동일성(sloppy identity) 독해로 이해될 수 있다. (Partee, 2008)

7) Cappelen and Hawthorne (2009), p. 91.

B: 그것은 나 역시 했어야 했던 거야.

(Cappelen and Hawthorne (2009), p. 91)

(다)에서 ‘그것’은 보스턴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보스턴이라는 도시는 A의 발화의 내용의 일부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결국,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C&H는 앞선 대용어 논증의 전제 (i)-뒤따르는 대화에서 대용어적 장치인 ‘그것(that)’과 ‘내가 말한 것’은 처음 대화의 의미값을 집어낸다. 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이제 C&H는 이런 자신들의 논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대용어적인 ‘그것’으로부터의 논증은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내가 말했던 것)은 ...이다’와 같은 형식의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 이상의 (흥미롭게)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C&H에 따르면, 비고전적인 명제[상대화된 명제]를 옹호하는 대용어적 ‘그것’ 논증은 옳바르지 않다.

이상의 C&H의 주장의 핵심 논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 및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나)/(다) 등에서 B의 ‘그것’은 고전적 명제를 받지 않는다(그리고 그렇게 보인다). 즉, (나) 등의 예가 특별히 고전적 명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가)와 유사성을 갖는 (나) 등을 통해서 아무도 고전적 명제를 공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 역시 고전적 명제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데 유효하지 않은 논증이며, (가),(나) 모두에서 (처음) A에 의해 표현된 것을 고전적 명제라고 간주 못할 이유는 없다.

### 3) 람다 추출 기법

한편, 여기서 어떤 사람은, C&H가 제시하는 (나),(다),(라)의 사례가 비고전적 명제 진영을 옹호하는데 쓰일 수 없다고 했을 때,

‘고전적 명제 진영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혹은 비고전적인 명제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를 궁금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에 대한 내용을 C&H가 자신들의 논증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내가 C&H를 비판하는 중요 논점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등의 사례에서 ‘그것’에 대한 느슨한 독해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C&H가 호소하는 이론은 ‘람다 추출(lambda abstraction) 기법’이라는 언어학에서의 이론이다. C&H에 따르면, “느슨한 독해의 사례에서, ‘그것’ 그리고 비슷한 대용어적 장치들은 원래 발언의 명제적 내용이 아니라, 대신 람다 추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속성을 복제한다(copy over).”<sup>8)</sup> C&H가 이런 ‘람다 추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대표적인 예는 ‘존스는 자살했다(Jones killed himself). 스미스 역시 그랬다(Smith did, too)’이다. 여기서 대동사 ‘그랬다(did)’가 받는 것은 ‘x는 x를 죽였다’가 된다. 그리고 관련하여, 원래의 ‘존스는 자살했다(Jones killed himself)’는 ‘존스는  $\lambda x$  (x는 x를 죽였다)’로 대체될 수 있으며, 대동사 ‘그랬다’가 받는 것은 ‘ $\lambda x$  (x는 x를 죽였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 $\lambda$ ’라는 람다 연산자는 명제함수 내의 변항을 추출(abstracting)함으로써(혹은 속박함으로써) 명제함수 표현을 일항 술어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연산자이다.<sup>9)</sup>

<sup>8)</sup> Cappelen, and Hawthorn (2009), p. 92.

<sup>9)</sup> 문귀선 (2011)에서. 잠시 람다 추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보자(이하, 문귀선 (2011)에서). 의미 유형이  $t$ (진리치의 의미 유형 혹은 식의 의미유형)인 명제함수의 표현은 ‘ $\lambda$ (람다)’라는 특별한 논리 부호를 사용하여 일항 술어의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는 람다 연산자라고 불린다. 즉, 람다연산자는 명제함수 내의 변항을 추출함으로써 유형이  $t$ 인 명제함수의 표현을 유형이  $\langle e, t \rangle$ (여기서  $e$ 는 개체들의 의미유형)인 특성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연산자이다.



이에 덧붙여서 C&H는 다음과 같은 사례 또한 람다 추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A)<sup>10</sup> 존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리고 빌 역시 그렇다.

(Cappelen and Hawthorne (2009), p. 46)

여기서 (A)는 두 가지 독해를 가지며, 이 중에서 느슨한 독해인 ‘빌은 빌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를 나타내는 표준적인 방법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동사구를 ‘ $\lambda x$  ( $x$ 는  $x$ 의 어머니를 사랑한다)’의 형식을 갖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sup>11</sup> 그리고 이것은 (A)가 직관적으로 다음을 의미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존은 ‘ $x$ 가  $x$ 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그런 개체  $x$ 임이라는 속성을 가지며, 빌 역시 그 속성을 갖는다.

비록 C&H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런 람다 추출 기법에 의한 설명은 사례 (나)에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나)

A: 나의 부모님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B: 그것은 역시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B의 ‘그것’이 받는 것은 ‘ $\lambda x(x$ 의 부모님들은  $x$ 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와 연관된다. 따라서 B의 발화는 <‘ $\lambda x(x$ 의 부모

---

<sup>10</sup> 원문에는 ‘(30)’으로 표현됨.

<sup>11</sup> 일반적으로 (타)동사구는 명제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람다 표현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령 ‘메리를 찾다’와 같은 타동사 구는 ‘(찬다’(메리’))(x)’- $(\text{kick}(\text{mary}))(x)$ -라는 명제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것은 ‘ $\lambda x[(\text{찬다}(\text{메리}))(x)]-\lambda x[(\text{kick}(\text{mary}))(x)]$ ’와 같은 람다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문귀선, 2011)

님들은 x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이 나에게 또한 적용된다>를 의미한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으로 ‘느슨한 독해’는 랍다 표현을 사용한 언어학적 기법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C&H는 주장한다.<sup>12)</sup>

## 2. C&H에 대한 반론들

이상에서 대응어적 ‘그것’ 논증과 이에 대한 C&H의 반론을 살펴 보았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차례이다. C&H에 대한 나의 반론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처음 한 가지는 C&H가 고수하려고 하는 고전적 명제주의의 독단을 지적하는 것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C&H의 핵심 논증 구조인 유비 논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나의 반론의 강조점은 상대적으로 후자의 두 가지 사안에 있다. 이것을 미리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2]절]. 둘째, 설사 유비 논증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충알을 삼키는 전략을 비고전적 명제 옹호자는 선택할 수 있다. 즉, (나)~(라)의 사례들 그리고 랍다 추출 이론 역시 비고전적 명제에 동조적인 사례들로 해석 가능하다[3]절].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조점이 덜 한 첫 번째 반론부터 시작해 하자.

### 1) 고전적 명제 독단주의

C&H는 사례 (가)를 비고전적 명제주의의 입장이 아닌, 고전적

12)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C&H가 랍다 추출 이론의 모든 것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랍다 추출 이론의 부분적인 문제점 또한 지적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방향의 접근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확신을 하는 듯하다.

명제주의 입장에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이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단지 그것을 명시하지 않고서 “비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할 때, 이 문장이 나타내는 것은 항상 <a시, b장소에서, 비가 오고 있다>와 같이 절대적으로 진리치를 갖는 명제이며, 대용어 ‘그것’이 앞선 발화에서 물리적으로 표현된바 그대로인 ‘비가 오고 있다’만을 받는 것 같아 보이는 현상은 단순한 ‘언어적 유연성[융통성]의 문제’라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점이다. 다시 말해서, (가)에서 A의 발화는, 이에 대한 B의 반응을 볼 때, 고전적 명제가 아닌 물리적으로 표현된 바그대로의 비고전적 명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실상은 (청자인 B의 느슨한 반응 여부와 독립적으로) 화자의 원래 의도와 관계되는 고전적 명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C&H의 주장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다. 우선, C&H는 화자가 마음속으로 의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것 내지는 청자에게 이해되는 바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이런 화자 우선성은 물론 대체로는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원칙적인 문제로서, 화자의 의도 그대로가 청자에게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록 화자의 의도 및 주변의 구체적 맥락 상황들이 (화자의) 물리적 발화 표현과 결합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자의 소위 ‘발화 맥락(context of utterance)’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건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은 아니라고 해도) 어떤 측면에서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표현된바 그대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물리적으로 발화된 표현’이 어떤 점에서는 적어도 우선권을 갖는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문자(우선)주의**’ 혹은 ‘(단위가 문장일 경우에) 문장(우선)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내가 이 입장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항상 문자

[혹은 문장] 표현 그대로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때때로 청자는 화자가 겉으로 말한바 그대로를 이해할 수도 있다(그런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보다 약한 주장이다.<sup>13)</sup> 따라서 이런 정신에 따르면, (가)의 A가 비록 고전적 명제를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B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이 반드시 같은 고전적 명제일 필요는 없다. B는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을 중심으로 A의 발화를 재해석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물론, 모든 경우에 이렇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sup>14)</sup>.

게다가 과연 A의 의도가 항상 고전적 명제에 대한 것인지가 확

---

13) 한편, 이 입장은 르까나티 (2003)에서 그가 비판하는 ‘문자주의(Literalism)’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르까나티가 ‘문자주의’라고 부르는 입장은, ‘한 문장은, 한 언화 행위의 맥락 하에서만, 확정적인 내용을 표현한다’는 ‘맥락주의(Contextualism)’에 정확히 반대되는 입장으로, ‘우리는, (자연 언어)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가 의미하는 것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연 언어 문장들에 진리-조건적 내용을 합법적으로 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맥락주의가 내용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반드시 (발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서, 문자주의는 때로는 화자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도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자주의와 내가 본문에서 언급한 입장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될 수 있다. 나는 기존의 문자주의와 다르게, ‘문장이 의미하는 것’과 ‘화자가 의도하는 것’ 사이의 철저한 구분을 바탕으로 한 화용론/의미론의 엄격한 이분법을 부정한다. 게다가 기존의 문자주의의 강조점이 화용론이 아닌 의미론에 있다(즉, 문자 그대로가 의미하는 바가 중심이 되고 맥락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이다)면 내가 현재 옹호하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화자의 의도가 일반적으로 우선적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리적으로 표현된 바를 중심으로 청자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르까나티가 비판하는 문자주의와 내가 본문에서 주장하는 문자주의는 전제된 이론적 배경과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 모두가 다르다.

14) 이런 측면에서 나는 비고전적 명제 진영이 단일성 논제를 항상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화자가 말한 것은 고전적 명제이지만, 청자가 이해한 것은 비고전적 명제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단일성 논제를 포기하는 길이 비고전적 명제 진영에게 전혀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 또한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하지 않다. (가)의 사례 자체는 A의 의도가 그렇다고 가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A의 의도가 항상 특정한 구체적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닌** 그럴듯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면, C&H가 (가)를 ‘대용어적 ‘그것’ 논증’을 대표하는 전형적 사례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의 논증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가-A)

(납치되고 있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A가 다른 장소에 있는 B와 통화하는 경우에)

A: 비가 오고 있어.

B: 그것은 우리가 있던 사막지대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야. 따라서 너는 사막지대 밖으로 납치되어 있음에 틀림없어.

(가-B)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사람이 부산 사람과 통화하는 도중에)

A: 비가 오고 있어

B: .....

(가-C)

(A가 특정한 시간 및 장소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A: 비가 오고 있네.

B: .....

모든 화자가 항상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가-A) 사례에서 A의 발화의 내용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는 비가 오고 있다>이지, <a시, b장소

에서, 비가 오고 있다>가 아닐 것이다(그리고 이 때 B의 ‘그것’은 ‘비가 오고 있어’만을 가리킨다). 또한 사례 (가-B)에서 A가 ‘비가 오고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이 의도하는 명제가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에는 비가 오고 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는 비가 오고 있다> 중에서 어느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혹은 적어도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sup>15)</sup> 끝으로 보다 극단적인 사례로서, A의 의도가 (구체적 시간 및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여기’조차 전혀 포함하지 않는 (가-C)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과 ‘여기’는 암암리에 전제되지만, A의 심리적 내용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C&H는 (가)와 같이 화자의 의도가 분명한 사례를 들으로써, 화자 A가 말한 것이 고전적 명제일 수밖에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은근슬쩍 독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에서와 같이 비교전적 명제진영에 더 유리한 사례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를 ‘대용어적 ‘그것’ 논증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가-A)~(가-C)의 사례들 즉, A의 발화가 나타내는 것이 **고전적 명제가 아닌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한**, C&H의 유비 논증은 시작조차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C&H가 고수하려는 고전적 명제주의의 주장에는 다소의 심스러운 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고전적 명제 및 비교전적 명제라는 전문적 이론 주장들을 벗어나서

15) 한편, 여기서 사례 (가-B)가 고전적 명제주의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능세계 이상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고전적 명제주의자는 ‘서울’과 ‘강남구 역삼동’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가? 단순히 ‘세계’만을 상정해서는 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힘들다. 반면에 가능세계 이상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비교전적 명제주의자는 ‘시간’과 ‘세계’ 이외에도 ‘개인’을 적합한 파라미터로 추가함으로써, 국지적인 장소를 쉽게 언급할 수 있다. 즉, <세계, 시간, 개인>의 순서쌍은 ‘서울’과 ‘강남구 역삼동’을 각기 따로 구분시킨다.

때로 상식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가)에서 B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A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상인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C&H가 원하는 바그대호가 아닐 수도 있다<sup>16)</sup>. 그리고 이런 일상인들의 언어 사용 용례는 언어철학자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sup>17)</sup>

그러면 이제 보다 중대한 반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 2) 유비 논증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C&H의 논증은 그 핵심 구조가 유비 논증에 있었다. (나),(다),(라) 등의 사례들이 특별히 비고전적 명제를 옹호하지 않듯이, (이들과 유사한) (가) 역시 비고전적 명제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제시하고자 하는 반론은 모두 이 유비 논증과 연관되어 있다. 우선 나는 (1)항에서 ‘C&H가 반례로 제시하는 예들((나)~(라))’과 ‘대용어적인 ‘그것’ 논증에 사용되는 예((가))’가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음으로 (2)항에서 나는 C&H가 드는 유비 논증과 비슷한 취지를 갖지만 타당하지 않은 유비 논증을 제시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유비 논증 또한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1)항에서의

---

16) 이에 대해서 실제 여론 조사를 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실험 철학적 주제가 될 것이다.

17)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 한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C&H가 고전적 명제 독단주의에 빠져있다고 필자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논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불공정하게 그들의 논점을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필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례 (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전적 명제주의 및 비고전적 명제주의 논쟁을 벗어나서 중립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C&H는 그렇지 않고서 자신들이 증명해야 할 것을 선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나는 이것이 그들 논의의 허점이라고 생각한다.

논의 목적이 C&H의 유비 추론에 균열을 가하는데 있다면, (2)항에서의 논의 목적은 보다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데 있다.

(1) 사례들 사이의 형식 및 내용상의 차이

비록 (가), (나), (다) 모두 ‘그것’이라는 대용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받는지 혹은 심층적인 내용을 받는지와 관련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가)와 (나)/(다)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대용어적 ‘그것’ 논증’의 전형적 사례가 되는 사례 (가)는 처음 화자가 발화한 문장이 ‘특정한 파라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문장, 즉 단순[수식어가 없는] 문장(bare sentence)’인 경우에 대한 것이다. 즉, 처음 A는 “비가 오고 있다”고 말하며, 그 장소(위치와 관련된 파라미터)가 런던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sup>18)</sup>. 따라서 “보스톤에서 그것은 참이 아니야”라고 B가 말할 때,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은 소리 내어 내 뱉어진 화자의 물리적인 문장 그대로 즉 비고전적[상대화된] 명제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대용어적 ‘그것’ 논증은 성립한다. 하지만 C&H가 반론을 제시하는 앞서의 (나),(다)의 예들을 살펴보자.

(나)

A: 나의 부모님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B: 그것은 역시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

A: 보스톤에는 비가 억세게 내리고 있다.

B: 그것은 뉴욕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이다.

18) 물론 대화의 맥락을 통해서 그것은 충분히 추측 가능할 수 있다.



(나)와 (다)의 예에서는 (앞선 원례 예 (가)와 달리) A의 처음 발화에 ‘나’, ‘보스턴’ 등 주체 혹은 장소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즉, C&H가 드는 예는 단순 문장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가)가 단순 문장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전적 명제와 비고전적 명제 사이의 (여러 주제 영역들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논쟁들에서, 비고전적 명제를 옹호하는 논증들은 대부분 (파라미터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문장이 물리적으로 발화되었을 때, 그것이 나타내는 명제가 반드시 고전적 명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이런 비고전적 명제주의자는 (파라미터가 명시적으로 발화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항상 그것이 비고전적 명제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지도 않을뿐더러) 파라미터가 명시적으로 발화된 문장(예: “보스턴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이 나타내는 명제가 고전적 명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라미터가 (부분적으로라도) 명시적으로 발화된 경우에 대한 것은 비고전적 명제주의자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결국 (나),(다)의 경우에 ‘그것’이 무엇을 받는 것인지는 애초부터 비고전적 명제주의자들이 주로 논증하는 사례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차이들을 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에 대해서, 나는 첫째, (나)와 (다)의 사례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둘째, 이들 사례들끼리의 차이점과 상관없이, 그들이 (가)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첫째, 내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와 (다)의 사례는 비록 C&H가 그것들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와 (나) 사이의 유비가 지니는 의미와 (가)와 (다) 사이의 유비가 지니는 의미가 차이가 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가)와 (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나)의 사

례는 ‘나’라는 지표사를 포함하는 예이다. 따라서 지표사를 포함하는 문장에 대한 카플란적인 표준적 이론이 그것에 적용될 수 있다. 즉, 해당 문장에 대해서 ‘내용(content)’과 ‘특성(character)’의 구분이 가능하다.<sup>19)</sup> 관련하여, (나) B의 ‘그것’이 받는 것이 ‘나의 부모님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와 같이 문장 유형, 즉 특성 그대로인 경우는 ‘그것’에 대한 느슨한 독해에 해당하는 반면에, ‘그것’이 받는 것이 ‘A의 부모님들은 A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와 같이 문장의 내용인 경우는 ‘그것’에 대한 엄격한 독해에 해당한다고 이해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사례 (나)는 변화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고전적 명제주의의 구미에 잘 들어맞는다. 소위 ‘지표사’의 표준적인 범위를 ‘나’, ‘여기’, ‘그것’ 등에서 그 이상으로 특별히 확장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표준적인 틀 내에서 (나)에 대한 독해들은 해결된다. 반면에 (가)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가)에서 <비가 오고 있다>는 비고전적 명제와 <a시, b장소에서, 비가 오고 있다>는 고전적 명제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카플란을 위시한) 지표사에 대한 표준적인 견해에 따르면, 특별히 지표사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표준적인 견해에 따를 때, 시간[시제]-중립적인 명제는 지표사의 범주에 아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나)의 사례는 기존의 표준적인 틀 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의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이때 (가)와 (나) 사이의 차이점을 가능하면 줄이고 싶어 하는 C&H주의자는 (가) 역시 지표사와 연관 지으면서 사례들 사이의 차이점을 없애려들지 모른다. ‘시간-중립적인 문장’을 ‘지표사’의 일반적 범주에 포함하도록 지표사에 대한 표준적인 이론을 수정하면 된다고 그는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인식적 양상, 개

19) 엄밀하게 말한다면, 내용과 특성의 구분은 하부 문장단위의 표현인 지표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몇몇 학자들을 따르면서 이것을 문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인적인 취향 술어, 미적/도덕적 술어에 대한 논의 등’에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방향으로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줄이는 전략을 C&H가 선호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가)의 A의 발화가 나타내는 명제를 A의 발화 문장의 ‘특성’과 연관 짓게 된다면, 명제태도(혹은 주장)의 대상이 ‘내용’이 아닌 ‘특성’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셈이며,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단순성(simplicity) 논제’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논제를 줄여서 ‘단순성 논제’라고 부른다.

- T1: 명제들이 있으며, 그들은 절대적으로 참, 그리고 절대적으로 거짓이라는 근본적인 단일한(monadic) 속성들을 예화한다.
- T2: 발화의 맥락들에 상대적인 평서문장들의 의미값들은 명제들이다.
- T3: 명제들은, 놀랍지 않게, 믿음, 희망, 바람, 의심 등과 같은 명제 태도의 대상들이다.
- T4: 명제들은 발화수반행위(언표내적 행위, illocutionary act)의 대상들이다; 그들은 가령 우리가 주장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 T5: 명제들은 동의와 불일치의 대상들이다.

(Cappelen and Hawthorne(2009), p.1)

여기서 C&H는 명제 태도의 대상, 그리고 단언[주장]의 대상이 ‘고전적 명제’임을 분명히 한다.<sup>20)</sup> 그리고 이런 고전적 명제는 (가)

---

20) 이런 점에서 C&H는 단순히 고전적 명제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가 하는 모든 역할이 고전적 명제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주장하는 ‘고전적 명제 만능주의’에 개입하고 있다.

의 사례에서 <a시, b장소에서, 비가 오고 있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C&H가 (나)의 사례에서 ‘그것’에 대한 느슨한 독해와 유비시키는 것이 (가)에서의 ‘비가 오고 있다’라는 문장 유형, 즉 특성이 라면, 그것은 대응어 ‘그것’이 받는 것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C&H에 따를 때, 주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고전적 명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와 (나)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시키려는 이상의 전략은 C&H가 선택할 최선의 방향이 아니다.

다른 한편, (가)와 (나)의 이런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이 유비 논증의 설득력을 무력화시키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 반론을 잠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나)는 지표사를 포함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쳐서 기술될 수 있다.

#### (나-A)

A: 철수의 부모님들은 철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B: 그것은 역시 영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 (가)와 (나-A) 사이의 차이는 (가)와 (나) 사이의 차이 보다 덜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A) 자체가 지표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 사례는 (다)의 사례에 보다 가까운 것이다. B의 ‘그것’이 A가 물리적으로 말한 것 그대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A의 말의 일부분만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다면, (나-A) 및 (다)의 사례는, 내용/특성 구분과 관련된 구조상의 차이점과는 무관한 것으로, ((가)와 (나) 사이의 차이점과 독립적으로) 여전히 C&H의 목적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와 (다) 사이에 (가)와 (나) 사이 못지않은 차이점이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가)와 그 근본적 취지가 다르지

않은 다음의 (가-D)를 고려하면서, 앞선 (다)와 비교해 보자.

(가-D)

(보스톤에 있는 A와 뉴욕에 있는 B가 서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A: 비가 억세게 내리고 있다.

B: 그것은 뉴욕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이다.

(다)

A: 보스톤에는 비가 억세게 내리고 있다.

B: 그것은 뉴욕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이다.

여기서, (다)에서 B의 ‘그것’이 A발화의 일부만을 받는 것은 명백하다. 반면에 (가-D)에서도 또한 그러한가?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 그대로와 주장된 바를 밀접히 연결시키는 ‘문자[문장]주의’에 따르면, 그것은 전혀 명백하지 않다. 비교전적 명제주의(그리고 문자주의)의 입장에서는 (가-D)에서 원래의 A 발화를 고전적 명제라고 간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적 명제주의가 선제되었을 때만이 (다)와 (가-D) 사이의 유사성, 즉 A발화의 일부만을 받는다는 유사성은 두드러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2장 1)절에서 언급한 (가-A)~(가-C)의 사례들을 통해서 고전적 명제주의를 선제하는 것이 독단이라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다. 결국, (가)와 (나) 사이의 차이점 못지않게 (가)와 (다) 사이의 차이점도 무시될 수 없다.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바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 보자. (가)의 사례를 옹호하는 입장, 즉 비교전적 명제주의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을 우선하라’는 일종의 ‘문자[문장]주의’를

그들의 주장의 전제로 삼을 수 있다. 반면에 고전적 명제주의자는 이런 ‘문자주의’에 반대하는 셈이다. 보이는(들리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가)가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 이상이 필요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 즉 일종의 포화(saturation)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나)와 (다)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포화’라는 것은 한 문장의 의미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가 되는 맥락적 과정이다. 고전적 명제주의자는 문장의 의미를 채우는 과정이 반드시 강제된다고 주장하며, 비고전적 명제주의자는 비교적 그것이 화용론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고 주장[강제성을 갖는 ‘포화’에 반대]한다. 반면에 (나)는 ‘지표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내용이 지표사를 포함하는 그대로인가 아니면 지표사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다)는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순수 문장주의 입장에서는 ((가)의 사례와 달리) (다)는 달가운 게 아니다. 결국, (가)가 ‘채움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나)는 ‘대체의 문제’와 가까워 보이고, (다)는 ‘부분 대체의 문제’와 가까워 보인다.

이상에서 (나)와 (다) 사례 내부에서의 차이점 및 그것이 (가)의 사례와 갖는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나)와 (다)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지 않으면서, (가)와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는 (나)와 (다)에는 고전적 명제 설명 대신에 램다 추출 이론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가)의 경우에도 과연 그런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가)와 (나)/(다)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C&H의 입장에서 보면, (가)에서 B의 ‘그것’은 비고전적 명제를 전제함이 없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유력한 후보가 (나)와 (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람다 추출 이론’이 될 것이

다.21)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람다 추출 기법’은 의미 유형(semantic type)이  $t$ (진리치 혹은 식의 유형)인 것을 람다 연산자를 사용하여 의미 유형이  $\langle e, t \rangle$ (여기서, ‘ $e$ ’는 개체의 의미 유형)인 일항 술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개체가 주어지면 진리치를 산출하는 어떤 것을 람다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람다 추출은 의미유형 ‘ $t$ ’를 의미유형 ‘ $\langle e, t \rangle$ ’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가)의 경우에는 어떤가? (가)의 경우에 ‘비가 온다’는 문장의 의미 유형 ‘ $t$ ’는 시간 및 장소가 주어졌을 때, 진리치를 산출하는 어떤 것이 된다.22) 따라서 ‘ $t$ ’가 ‘ $\langle e, t \rangle$ ’가 되는 람다 추출 변환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을 (가)/(나)/(다)와 달리 갖는다면, 유비 추론의 타당성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상의 구조상, 내용상의 차이점들로 말미암아, 유비 추론의 설득력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23)

## (2) 반대의 귀결을 갖는 새로운 유비 논증

- 
- 21) 비록 C&H가 (가)에서 처음 화자인 A의 발화가 고전적 명제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B가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나)/(다)와 (가)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C&H측에서 람다 추출 이론을 훌륭한 잠정적 대안으로 여길만하다고 생각한다.
- 22) 반면에, (고전적) 명제에 대한 의미 유형은 그것이  $\langle s, t \rangle$ (여기서  $s$ 는 가능세계)라는 점에서, (고전적) 명제는 ‘가능세계로부터 진리치로의 함수’라고 규정될 수 있다.
- 23) 한편, 한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가),(나),(다)의 사례들을 C&H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전히 고수할 수 있음을 지적하셨다. 필자가 그들의 언급들에 모두 동의할 수는 아니지만, (가),(나),(다)의 사례들 및 이와 대비될 수 있는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 “한 문장과 그 문장의 사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필자가 아직 충분히 고려해 보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관련된 언급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이제 (가)와 (나)/(다)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대신에, C&H의 유비 논증 자체에 대항하는 다른 방식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원래 C&H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같은 구조를 지닌 예들이 다른 결론을 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반례’를 제시하는 것은 예부터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유비 논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전략의 파급력을 C&H에게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다. 만약 C&H가 드는 유비 논증과 비슷한 취지를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은 새로운 유비 논증이 존재한다면, C&H의 유비 논증의 설득력은 매우 축소되게 될 것이다.

이제 논의를 위해서 잠시 다음과 같은 논증을 고려해 보자.

[유관한 파라미터 결정 문제에 대한 이상적 완전주의 이론(극단적인 고전적 명제주의)을 옹호하는 논증 (하)]

고전적 명제주의자는 “비가 온다”의 실질적 내용이 단순히 표현된 그대로가 아니라, <시간  $t$ 에, 장소  $p$ 에, 비가 온다>라고 주장한다. 시간과 장소가 더 채워 넣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만으로 충분한지는 확실하지 않다. 여기서 왜 더 채워 넣으면 안 되는가? 가령, ‘지구는 둥글다’는 발화가 나타내는 실질적인 명제는 <물리학 이론  $x$ 에 따르면, 지구는 둥글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채워나가는 전략은 더 계속 될 수 있다. 단순히 한 특정 물리학 이론만을 지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누구누구의 특정 시기의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둥글다> 등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논증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sup>24)</sup> 위와 같은 완전주의의 이상은 무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만족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논증을 어떤 비고전적 명제주의자가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은 어떤가?

[가상의 유비 논증 K]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는 둥글다'로부터 '누구누구의 언제의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둥글다' 등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비가 온다'의 경우에도 파라미터들을 채워서, <시간  $t$ 에, 장소  $p$ 에, 비가 온다>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원래의 C&H의 유비 논증이 파라미터를 줄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다면, 이 가상의 유비 논증은 파라미터를 늘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논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후자[논증의 결론]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고전적 명제주의자 역시 후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고전적 명제주의자가 '모든 (물리적으로 시간, 장소가 표현되지 않은) 단순 문장은 고전적 명제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의 (카) 사례와 같이, A에 의해서 주장된 것이 고전적 명제가 분명한 사례를 (고전적 명제주의자이든 비고전적 명제주의자이든 상관없이) 인정해야 한다.

(카)

A: 비가 오고 있다.

B: 그것은 기상청 일기기록을 정확히 작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

24) 한편, 나는 이런 주장의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추후의 글들에서 나는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 A의 발화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는 명제에 대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A와 B 모두는 A의 발화를 단순히 <비가 오고 있다>는 명제가 아니라, <a시, b장소에서, 비가 오고 있다>는 명제로 이해한다. 따라서 위의 가상의 유비 논증 K의 결론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C&H의 원래 유비 논증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sup>25)</sup>

그러면 이상을 정리해보자. C&H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 (i) 아무도 (나)/(다) 등의 사례를 통해서, 비고전적 명제를 옹호하지 않는다.
- (ii) (가)와 (나)/(다) 등의 사례는 매우 유사하다.
- (iii) 따라서 우리는 (가)의 사례를 통해서 비고전적 명제를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에, 내가 방금 제시한 가상의 논증(K)는 다음과 같다:

- (i) 아무도 (하)를 통해서, 고전적 명제가 옳다고 하지 않는다.
- (ii) (카)와 (하)는 매우 유사하다.
- (iii) 따라서 우리는 (카)의 사례로 고전적 명제가 옳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

---

25) 한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C&H의 논증이 유비논증이라기 보다는 대응어적 ‘그것’ 논증에 대한 반례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는 비록 C&H가 명시적으로 자신들의 논증이 유비논증이라고 밝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유비논증에 대한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카)의 사례는 ‘때로는 고전적 명제가 실제로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는 방금 제시된 논증 (K)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C&H에 의해서 원래 제시된 논증조차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결국, 내가 제시한 가상의 유비 논증을 통해서 고전적 명제주의를 공격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C&H와 같은 식의 유비 논증을 통해서 비고전적 명제주의를 공격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결여된다.<sup>26)</sup>

### 3) 과연 람다 추출 이론은 카펠렌과 호손의 편인가?

이제 C&H에 대한 마지막 반론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나는 C&H가 (나)/(다)와 같은 사례들에 대해서 고전적 명제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바를 람다 추출이론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그리고 람다 추출 이론은 고전적 명제주의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되물을 필요가 있다. 나는 논문을 마치기에 앞서서 보다 과격한 입장, 즉 ‘총알을 삼키는(bite the bullet) 전략’에 대해서 고려해 볼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

26) 한편, 어떤 사람은 C&H의 원래 유비 사례가 ‘그것’이라는 대용어를 포함하는 논증인데 반해서, 내가 제시한 가상의 유비 논증 (K)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이상의 논의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문은 설득력이 적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대 비석에서, ‘x’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을 때, 그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 학자들이 ‘그것은 후세에 조작된 것이다/그것은 사실이다’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것(고대의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학자들의 배경 지식 및 자신들의 고유 이론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정보들까지 포함시켜야 완전해 지는지에 대한 논쟁은 본문에서 제시된 바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시 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을 이와 관련하여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본문에서 제시된 내용이 문제 상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필자의 단순한 판단 때문이다.

핵심은 ‘(나),(다) 등 C&H가 제시하는 사례들 또한 비교전적 명제에 동조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후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유비 논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2)절에서의 나의 주장들이 설령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독립적으로 C&H의 논증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간과될 수 없는 한 측면에 대해서 말해 보자. 나는 C&H가 다음과 같은 유비 추론의 순서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나),(다), (라)의 경우에 ‘그것’에 대한 엄격한 독해에 대응되는 고전적 명제 이외에도 ‘그것’에 대한 느슨한 독해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굳이 비교전적 명제를 요청할 필요 없이 람다-추출 이론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2) 마찬가지로 (가)의 경우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유비 추론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1\*) (가)의 경우에 고전적 명제에 의해서 설명되기 힘든 부분은 비교전적 명제에 의해서 설명가능하다. (2\*) (나),(다), (라)의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내가 이와 같이 반대 방향의 해석을 떠올리게 된 주요 동기들 중에 하나는 위에서 (1)과 관련하여 C&H의 논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포함된다. 그들은 아무도 (나),(다),(라)와 같은 사례를 비교전적 명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문헌들을 통해서, (라)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서 비교전적 명제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르까나티(2007)는 발와이즈를 인용하며 상대화된 명제[비고전적 명제]가 주장[믿음]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언급한다.

흙츠와 왓슨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들 사이에는 소금과 후추가 있다. 흙츠는 ‘소금이 후추의 왼쪽에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흙츠의 관점에서 소금은 후추의 왼쪽에 있기 때문이다.

다. 왓슨의 관점으로부터, 후추는 소금의 왼쪽에 있다. 하지만, 왓슨은 어떤 용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서, ‘소금은 후추의 왼쪽에 있다’고 잘못되게 말한다. 흠즈와 왓슨은 겉보기에 ‘같은 것을 말한다’(그래서 그들은 같은 렉톤[상대화된 명제]을 표현한다). 하지만, 흠즈는 맞고 왓슨은 틀리다(그래서 그들은 다른 고전적인 명제 혹은 다른 오스틴적 명제를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렉톤을 그들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상대화하기 때문이다). (Recanati, 2007, p. 84.에서 필자가 일부 각색, 최동호(2014)에서 재인용)

여기서 르까나티는 인지적 내용의 측면에서 흠즈와 왓슨이 같은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상대화된 명제[비고전적 명제]의 존재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르까나티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라)와 같은 사례들이 비고전적 명제를 옹호하는데 쓰인 적이 없다는 C&H의 주장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sup>27)</sup>

이제, 필자와 같이 (1\*)에서 (2\*) 순서로의 유비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람다 추출 이론이 비고전적 명제와 얼마만큼 유사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람다 추출 이론이 비고전적 명제를 옹호하는 입장들 중에 하나인 ‘속성으로서의 내용 이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람다 추출 이론은 결코 고전적 명제 진영에 호의적인 언어학적 기법이 아니다. ‘내용에 대한 속성 이론’에 따르면, 명제 태도의 대상(특히, 데 세(de se) 인지적 태도의 내용)은 고전적인 명제가 아니라, 속성(property)이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루이스(1979), 치죤(1981), 치에르치아(1989), 몰트만(2003, 2010), 반 인와겐(2004), 페이트(2008), 터너(2010), 스토자노빅(2012), 피

27) 게다가 ‘왼쪽/오른쪽’의 방향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비고전적 명제를 옹호하는 실제 논문은 르까나티 (2007)이외에도, 몰트만 (Moltmann, 2010) 또한 존재한다.

어슨(2013), 스피익스(2014), 등<sup>28)</sup>이 있다. 이 중에서 몰트만의 논의를 잠시 언급해 보도록 하자. 그녀는 다음의 (B)<sup>29)</sup>에서 우리는 존과 빌이 같은 것을 믿는다는 직관(a의 경우)과 다른 것을 믿는다는 직관(b의 경우)을 모두 갖는다고 주장한다.

(B) a. 존은 그가 승자라고 생각한다(John thinks that he is the winner).

빌은 그가 승자라고 생각한다(Bill thinks that he is the winner).

-----

(따라서) 존과 빌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

b. 존과 빌은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John and Bill thinks the different things).

(Moltmann (2010), p. 193)

여기서 몰트만은 ‘태도적 대상(attitudinal object)’과 ‘태도적 대상의 종(kind of attitudinal object)’을 구분한다. b에서는 존과 빌이 ‘그가 승자라는 존[빌]의 생각(John[Bill]’s thought that he is the winner)’이라는 태도적 대상을 각각 갖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며, a에서는 ‘승자임이라는 생각(the thought of being the winner)’이라는 ‘태도적 대상의 종’을 갖기 때문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여기서 몰트만이 단순한 속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적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루이스가 말하는 속성이 진리 조건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단점을

---

<sup>28)</sup> Lewis (1979), Chisholm (1981), Chierchia (1989), Moltmann (2003, 2010), Van Inwagen (2004), Feit (2008), Turner (2010), Stojanovic (2012), Pearson (2013), Speaks (2014)

<sup>29)</sup> 원문에는 ‘(22)’로 표시되어 있음

갖는데 반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태도적 대상은 진리 조건적으로 완전하다는 장점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몰트만은 명제태도의 대상 및 종속절(that 절)이 나타내는 것이 고전적 명제라는 생각을 거부하며, ‘태도적 대상’이 의미값 이면서, 명제태도 및 주장[단언]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몰트만이 말하는 ‘태도적 대상’은 일종의 속성이다. 그러면, 이제 몰트만이 드는 사례 (B)를 다음과 비교해 보자.

(B\*)

존은 그가 승자라고 생각한다.

빌 역시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 사례에서 ‘그렇다’라는 대동사가 받는 것은 람다 추출 이론을 통해서 변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B)와 (B\*)는 그 구조 및 실질적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다른 한편, 언어학에서의 표준적인 형식 의미론에 의하면, 이런 람다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는 ‘람다연산자의 작용역 범위 내에 있는 명제함수에 의해 명시되어지는 속성을 지닌 개체들의 집합’이라고 간략히 비형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30)</sup> 그리고 이것은 앞서 살펴 보았던 (A)에 대해서 C&H가 언급했던 바와 매우 유사하다. C&H는 (A)에서 ‘빌은 빌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를 나타내는 표준적인 방법이 ‘그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동사구를 ‘ $\lambda x$  (x는 x의 어머니를 사랑한다)’의 형식을 갖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런 식의 취급 방식은 (A)를 직관적으로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존은 ‘x가 x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그런 개체 x임이라는 속성을 가지며, 빌 역시 그 속성을 갖는다.

---

30) 문귀선 (2011)

결국, 람다 추출 이론을 통해서 변환된 표현은 내용에 대한 속성 이론이 말하는 바에 상대적으로 매우 가깝다. 따라서 람다 추출 이론이 적용되는 (나)와 (다)는 그렇지 않은데 반해서, 유독 (가)만 비고전적 명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된다는 C&H의 논증은 그 설득력을 잃게 된다. (가) 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 역시 고전적 명제 진영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sup>31)</sup>

한편, 앞서 잠시 언급된 바가 있지만,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람다 추출에 의한 설명이 결코 C&H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32)</sup> 다음의 사례 (나-B)를 고려해 보자.

(나-B)

A: 나의 부모님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B: 나 역시 그것을 믿는다.

여기서 ‘그것’은 ‘ $\lambda x$  ( $x$ 의 부모님들은  $x$ 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B가 실제로 믿는 것은 고전적 명제가 아닌 ‘람다 추출 표현으로 변환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다시 말해서 B는 절대적으로 참 혹은 거짓을 가지는 어떤 특정한 명제(고전적 명제)를 믿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앞서 언급한 C&H의 ‘단순성’ 논제와 충돌하게 된다. C&H는 ‘단순성 논

31) 한편, C&H가 그들의 책 2장에서 ‘내용으로서의 속성 이론’을 따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비록 자신들이 결정적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만, 그들은 속성 이론에 대해 그들이 회의적인 이유를 5가지 간략히 언급한다. 이런 점에서 C&H는 람다 추출 이론이 속성 이론과 매우 유사한 견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것을 단순히 중립적인 언어학적 기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32) 여기서 필자가 이야기하는 바가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C&H의 논증이 람다 추출에 의한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제’ 중에서 명제태도의 대상이 고전적 명제라는 논제를 자신들이 제시한 사례들(혹은 그것의 변형들)을 통해서 스스로 반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결국, C&H는 언어학에서의 대용어에 대한 엄격한/느슨한 구분 및 느슨한 독해에 대한 ‘람다 추출( $\lambda$ -abstraction)’ 해석 기법을 해당 논의에 끌어 들여와서 자신들의 무기로 삼고자 하지만, 그들의 논의는 (잘못된)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참고문헌

- 문귀선 (2011), 『형식 의미론 입문』, 한성대학교 출판부.
- 최동호 (2014), 「고전적 명제 개념에 대한 비판과 비고전적 명제주의를 위한 새로운 대안제시」, 『철학연구』, 제107권, pp. 65-109.
- Cappelen, H. and Hawthorne, J. (2009), *Relativism and Monadic Tru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ierchia, G. (1989), “Anaphora and Attitudes De Se”, in R. Bartsch, J. van Benthem, and P. van Emde Boas (eds.), *Semantics and Contextual Expression*, Dordrecht: Foris Publication, pp. 1-31.
- Chisholm, R. (1981), *The First Pers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ummett, M. (1991), *The Logical Basis of Metaphys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ing, J. C., Soames, S. & Speaks, J. (2014), *New Thinking About Proposi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Kaplan, D. (1989), “Demonstratives”, in J. Almog, J. Perry and H. Wettstein (eds.), *Themes from Kapl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81-563.
- Lewis, D. (1979), “Attitudes De Dicto and De Se” *The Philosophical Review*, 88, pp. 513-543.
- Moltmann, F.(2003), “Propositional Attitudes without Propositions,” *Synthese*, 135, pp. 77-118.
- \_\_\_\_\_ (2010), “Relative truth and the first person”, *Philosophical Studies*, 150, pp.187-220.
- Partee, Barbara(2008), “Introduction to Issues in Anaphora”, Available at: <[http://people.umass.edu/partee/RGGU\\_2008/R](http://people.umass.edu/partee/RGGU_2008/R)>

GGU085\_2up.pdf>

- Pearson, H (2013), "A Judge-Free Semantics for Predicates of Personal Taste", *Journal of Semantics*, 30 (1), pp. 103-154.
- Recanati, François(2003), *Literal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_\_\_\_\_ (2007), *Perspectival Thought: A Plea for (Moderate) Relativ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 M.(2003), "Objects of Relief", in A. Jokic and Q. Smith (eds.), *Time, Tense and Reference*, Cambridge, MA: MIT Press.
- Ross, John R.(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Stanley, J.(1997a), "Names and Rigid Designation", in B. Hale and C. Wright (eds.),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Press, pp. 555-85.
- \_\_\_\_\_ (1997b), "Rigidity and Content", in R. Heck (ed.), *Language, Thought and Logic: Essays in Honour of Michael Dummet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31-56.
- Stojanovic, Isidora (2012), "The Problem of De Se Assertion", *Erkenntnis*, 76 (1), pp. 49-58.
- Turner, J. (2010), "Fitting Attitudes De Dicto and De Se," *Noûs*, 44 (1), pp. 1-9.
- Van Inwagen, P. (2004), "The Self: The Incredulous Stare Articulated", *Ratio*, 17 (4), pp. 478-491.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Institute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vvswohol@snu.ac.kr

---

A debate between Eternalism and Temporalism focused on  
Anaphoric ‘that’ argument

Dongho Choi

---

Can a proposition that a sentence like “It is raining” represents be sometimes <It is raining> itself? or is it always <It is raining, at specific time t, in certain place p>? This is known as the debate between Eternalism and Temporalism and belongs to the sub-category of the wider debate between Classical Propositionalism and Non-classical Propositionalism. Regarding this matter, Cappelen and Hawthorne(2009), supporting Eternalism[Classical Propositionalism], raise interesting objection to anaphoric ‘that’ argument that is one of the famous arguments supporting Temporalism. In this paper, I try to show how difficult it is to advocate Classical Propositionalism by refuting what Cappelen and Hawthorne claim.

Key Words: Eternalism, Temporalism, Classical proposition, Relativized proposition, Cappelen and Hawthorne